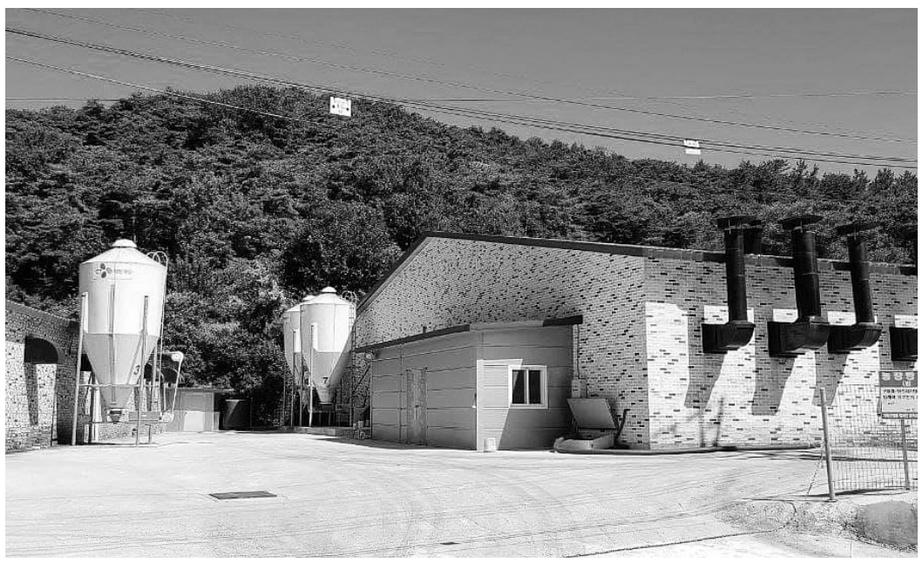
정읍 친환경축산농장에 직불금 혜택

악취 저감·분뇨 적정 관리
탄소중립 기여 땐 가점 부여
지정시 직불금 20% 추가 지원
희망농 접수…50일 이내 심사


정읍시가 환경친화축산농장 지정 축산농가에 지원을 강화한다. 환경친화축산농장 지정 시설.
〈정읍시 제공〉

"환경친화축산농장 신청해 친환경 축산에 앞장서세요."

정읍시가 환경친화축산농장 지정 축산농가에 지원을 강화하는 등 축산업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정읍시는 축산농가의 자발적인 노력으로 악취 발생 절감과 쾌적한 농촌환경 조성을 위해 '환경친화축산농장' 지정 신청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환경친화축산농장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에 따라 축사를 친환경적으로 관리하고 가축분뇨의 적정한 관리·이용에 기여하는 축산농가를 말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산현장 여건을 반영해 환경친화축산농장 지정기준 중 수질기준, 조사료 확보 기준과 같은 농가에 부담이 큰 항목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하는 등 개선책을 시행하고 있다.

지정을 희망하는 농가는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춰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관리원 또는 해당 사업장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가 접수되면 서류검토와 현장심사 등을 거쳐 50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환경친화축산농장으로 지정받게 된다.

또 에너지 절약형 시설·장비를 사용하거나 가축분뇨를 퇴·액비 외에 정화방류, 고체연료 활용 등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농가는 가점도 부여받는다.

환경친화축산농장 지정 시 축산악취개선사업·친환경축산물직불금 20% 추가지원, 친환경축산 위탁교육 등 주기적 교육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읍시 관계자는 "환경친화축산농장 지정 확대를 위해 다각적으로 홍보하고 있다"며 "깨끗하고 쾌적한 농촌환경 조성을 위해 많은 축산농가가 환경친화축산농장으로 지정 받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고창 귀농인 농업 창업하면 최대 3억원

주택 구입시 7500만원 지원…다음달 7일까지 신청자 모집

고창군이 귀농인의 안전정인 정착과 신규 농업인력 육성을 위해 하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자를 7월7일까지 모집한다.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은 귀농인의 농업창업과 주거공간 마련 자금을 저금리로 융자해주고 정부예산으로 이차 보전하는 사업으로, 농업창업 자금은 세대별 3억원 한도, 주택 구입 자금은 7500만원 한도이다.

금리는 연 1.5%로 5년 거치 10년 원금 균등 분할상환조건이며, 신청 대상은 사업 신청연도 기준 만 65세 이하인 세대주로서 농촌 외 지역에서 1년 이상 지속 거주하다 농촌지역에 전입한 지 만 5년 이내인 귀농인 또는 재촌 비농업인(농촌지역에 거주하면서 5년 이내에 영농 경험이 없는 농업인)으로 귀농을 위한 영농 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한 실적이 있어야 신청이 가능하다.

고창군은 민선 8기 공약사업으로 귀농 초기 소득이 안정적이지 않은 귀농인의 조기 정착을 돕기 위해 올해부터 신규로 정책자금 대출실행(고정금리)을 한 건에 대해 은행에 납부한 자부담 이자 중 1%를 3년간 군비로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

남원시, 민원 서비스 친절 교육

이미선(맨 오른쪽) 남원시의회 부의장이 지난 14일 남원시청 민원실 직원들을 대상으로 친절교육을 진행했다.
〈남원시 제공〉

남원시가 시민과 직원 모두가 행복한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시청 민원실 내 근무하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친절교육을 실시했다.

남원시는 민원인과 직원이 함께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는 시민 만족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매월 친절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친절교육 강사로는 이미선 남원시의회 부의장이 나서 의정활동 중 시민들과 소통했던 진솔한 경험을 전하며 민원실 직원들을 격려했다.

이 부의장은 남원수화통역센터 수화통역사로 활동한 경험을 바탕으로 청각장애인 방문 때 소통할 수 있는 '안녕하세요,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가세요, 사랑합니다' 등 기본적인 수화를 알려주며 참가자들의 호응을 이끌어 냈다.

이미선 부의장은 "자신감, 책임감이 바로 서야 민원인들에게 자연스럽게 묻어나와 시민들에게는 행복하고 편안한 관공서의 이미지를 갖게 한다"고 말했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

고창복분자·수박축제

16~18일 선운산도립공원 일대

고창에서 복분자와 수박을 테마로 16일부터 18일까지 선운산도립공원 일원에서 '제20회 고창복분자와 수박축제'가 열린다.

선운산도립공원은 곳곳에 기암괴석이 웅장한 풍경을 그려내고 경관이 빼어난 울창한 숲속에 천년 고찰 선운사가 자리잡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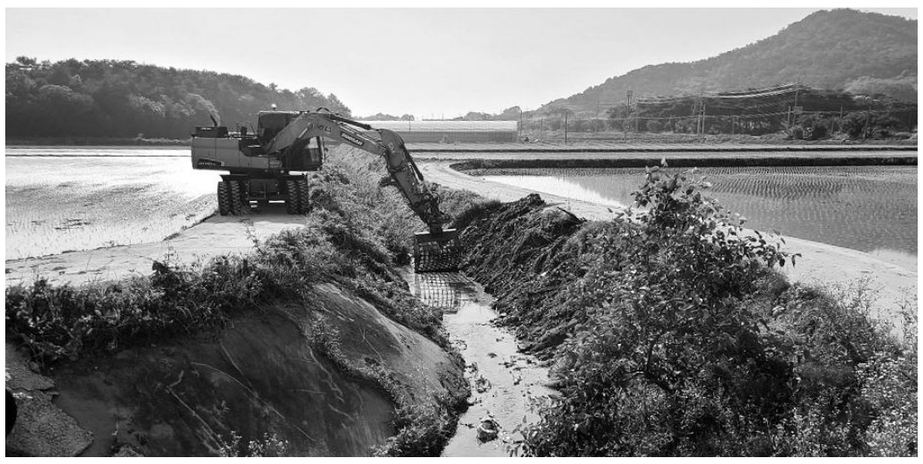
축제기간 중에는 전국 최고 품질을 자랑하는 고창수박과 고창복분자로 만든 화채를 시식할 수 있는 코너와 남녀노소 누구나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수박 빨리먹기, 수박 빨리 나르기, 장애물 3종경기 등이 진행되며, 품질 좋은 농산물을 현장에서 구입할 수 있는 부스도 운영된다.

올해 축제의 하이라이트는 DJ와 함께하는 더워(The War) 물총싸움으로 관광객들과 함께 한바탕 물싸움이 펼쳐질 예정이며, 개막식에는 찬또배기 이찬원과 인간 녹음축음기 조명섭의 축하공연도 예정돼 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2023 세계유산 고창방문의 해를 맞이해 개최되는 이번 고창복분자와 수박축제는 관광객과 함께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했다며" "축제를 통해 일상에 지친 몸과 마음을 잠시나마 쉬어가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

정읍 산림 위험지구 장마철 앞 정비



급경사지·사방댐 등 288개소

정읍시가 본격적인 장마철에 앞서 재해예방을 위한 산림 위험지구 일제점검을 한다.

오는 7월까지 진행하는 이번 점검은 관내 산사태취약지역 163개소, 사방댐 83개소, 임도 42개소 등 총 288개소가 대상이다.

급경사지·임도·사방사업지 등을 점검한다. 또 물흐름에 방해가 되는 지장물을 제거하고 배수시설을 정비〈사진〉하는 등 침수피해 예방에 나선다. 또 재해위험제거단 5명, 산사태 현장예방단 2명, 임도관리단 1명 등 별도의 점검반을 구성, 수시 순찰하고 필요 시 응급조치까지 한다는 방침이다.

산사태로 인한 인명피해를 막고자 대피장소를 정비하고 임도(산길) 배수로와 쓰러진 나무, 사방댐 잡목 등도 정비할 계획이다.

정읍시 관계자는 "시민의 안전을 위해 취약지역을 더욱 꼼꼼히 살펴 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남원 2개 마을 33억 투입 생활여건 개선

강석·계산마을 공모사업 선정…내년부터 4년간 빈집 정비 등

남원시가 농림축산식품부 주관하는 '2024년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공모에 대강면 강석마을과 이백면 계산마을이 각각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

이 사업은 2024년부터 2027년까지 4년 간 연차적으로 추진된다.

전체 주택 수 51호, 인구수 79명, 30년 이상 주택 23호인 대강면 강석마을에는 사업비 16억원이 투입된다. 전체 주택 수 61호, 인구수 86명, 30년 이상 주택 44호인 이백면 계산마을에는 17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남원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두 마을의 빈집·노후주택 정비, 슬레이트 지붕 개량, 옹벽 설치 등을 추진한다. 주민들의 정주환경을 대폭 개선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남원시는 현재까지 총 6번의 공모에서 8개 마을이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올 사업지로 선정된 수지면 등동마을과 산내면 입석마을은 현재 사업이 진행 중이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인구 감소 대응을 위해 준비한 지역활력타운과 농촌협약 공모 선정에 이어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이번 사업에 또 선정되는 성과를 나타냈다"면서 "앞으로도 남원시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일에 더욱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